



# M A T H E T E S

16

2019. 4. 21

실패하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건은석교회**  
 담임목사 신 윤 식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38길 7-12  
 (053) 421-9049 010-3323-9049

## 하나님의 은혜

고전 15:9-11

사도 바울의 중심에 굳건히 자리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했기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 하였으므로 사도와 참람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9절)는 내용으로 자신의 존재 위치를 해석 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해석한다면 누구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십자가의 원수 된 자로 드러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든 권력이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으로 평가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신자로 발견되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 3:8-9)는 말로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신자는 바울의 이 증거를 따라 신자 됨에 대한 당당함과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의 시각과 조건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교회 일에 열심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신자는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어떤 삶을 살든 그 때문에 소금과 빛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자를 삶과 무관하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규정해 버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삶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고 해서 소금과 빛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 잘못됨이 있고 문제가 드러나고 실수한다 해도 그것을 가지고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이 말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현재의 나”**는 나 스스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는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0절)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되었다는 것은 인간됨이 변화 되었

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항상 죄의 다스림을 받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극복하며 선을 행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도 인간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금과 빛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영원을 의미하는 것처럼 신자는 세상에서 확고한 영원에 속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나의 나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에 속한 소금과 빛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하여 천국만 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것은 은혜로 시작하여 다시 인간의 행함,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바울의 겸손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무엇을 하든 바울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옳은 말 같지만 결국 바울처럼 겸손한 신자 되자는 뜻일 뿐입니다. 소금과 빛다운 신자 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울의 의도에서 벗어났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는 말에는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이 사도의 역할이나 사도다움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사도의 사도됨은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속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하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믿음을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인정받고, 선교나 구제와 같은 사업에 힘쓰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에서 벗어난 것일 뿐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은 자신의 행함에서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 된 나 같은 자를 영원에 속하게 하신 은혜가 감사와 기쁨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신자가 하나님께 소유된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갈 2:20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는 말을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마음에 욕심이나 미움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행실에서도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는 것을 다른 삶을 사는 것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삶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부활의 생명에 있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죄 없는 삶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수준 높은 도덕적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 만들어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부활이라는 확고한 생명에 속한 자로서의 삶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사는 것이면 삶의 수준과 실천 등등의 것을 따지거나 평가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죽음에 속한 자로서의 삶으로

평가될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죽음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했는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라는 물음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받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으로 성령 받음과 믿음 있음을 증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빠지기 쉬운 사탄이 준비한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자 됨을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 되었다고 말할 때 본래의 나는 죽음에 속한 죄의 존재로서의 나입니다. 그러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 생명에 속한 빛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 된 후에 다시 예전의 죽음에 속한 나로 되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혜에 소유되어 은혜가 목격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에 소유된 신자는 자신이 행한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은혜만 증거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하셔서 많은 업적을 이루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다 해도 그 때문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이 수고하였든 적게 수고하였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속한 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은사 문제에서도 동일합니다. 은사의 여부와 무관하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본래의 나를 생각한다면 거룩한 성도로 부름 받을 이유, 조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일 뿐입니다. 거룩한 성도된 조건에는 은사도, 우리의 행실도, 업적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는 모두가 '내가 나 된' 신자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성도가 죄로 인해 타락해도 구원 된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문은 여전히 인간의 자질과 행함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딤후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소유된 사람입니다. 은혜로 인해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 받았고 이미 영원 전에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에 참여 된 자로 확정된 것이 신자입니다. 이 은혜는 헛되지 않기에 생명에 속했다는 것이 신자의 확고한 운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됨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게 되면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삶을 관리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불안감이 있게 되고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잘못된 것을 고치고 좀 더 나은 선택으로 보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삶을 관리한다 해도 구원의 조건이 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설령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을 만든다 해도 그 상태를 구원이 될 때까지 유지하



지 못한다는 결정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을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 번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게 되는 나인 나 됩니다. 은혜 안에서는 방언을 하는 자, 예언을 하는 자가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 모두가 죽은 자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하고 알게 된 은혜라면 교회는 반드시 바울의 은혜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자신이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 없이는 다만 죽음으로 드러날 뿐이기 때문에 신자는 자신에게 대해서는 다만 죽음이라는 그 기억 하나만으로 주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바울의 고백에 “아멘” 으로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소유된 신자에게는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의 일일 뿐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게 때문에 시작과 마침의 모든 과정 또한 은혜라는 말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9,10절)는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모든 것에서 바울이

알고 이룬 행함이나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묵격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에 있음으로 해서 바울과 동일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는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는 의미를 배우고 알게 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실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아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1절)는 말처럼 우리가 전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딤후 1:10-11절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명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고 말합니다.

이것이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불드셔서 신자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심으로 영원한 부활 생명에 들어가는 완성된 영광의 그 날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소유되어 인도될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도록 간섭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현실이었고 또 남은 시간을 살아갈 헛되지 않을 현실이기도 합니다.

## 하나님의 손에서

(9강)

전 2:24-26

세상일을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면 헛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일까요? 세상을 구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신자라면 '없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을 소유하든 어떤 일을 했든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으로 확정되어 있기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전도서의 시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 해도 그것을 헛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것이 의로움이 아니고 믿음 또한 가짜 믿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바울의 말처럼 신자에게는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며 자기를 위해 수고하는데서 마음의 기쁨을 누립니다. 자기 기쁨이 인생

의 이유와 목적으로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든 자신의 기쁨에 방해가 된다면 원수와 다를 바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 몸에 집착하며 자기 기쁨을 위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됨으로 솔로몬을 생각하면 아마 가장 부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25절)라고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편함과 즐거움을 솔로몬보다 더 누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희망하는 인생에는 나만 있을 뿐이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자기 기쁨을 위한 인생에만 몰두하고 있기에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기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손에서 나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모든 것 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들고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전도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좌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희락은 지혜와 지식에 어울리는 것이지 세상에 어울리는 희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발상 또한 헛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 11:1-3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라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삼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가 즐거움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에만 몰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영광 받으시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 3: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다른데 그것

이 선물이라면 공평하지 않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먹고 마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총이라는 뜻이 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 먹고 마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인간은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평생을 수고하여 모은 것을 잃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갈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곳간을 열어 더 크게 지을 계획을 세우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워 할 미래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 수고하고 모으고 쌓아가지만 그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일 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고 이룬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타내는 삶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졌다는 사실로 감사하게 되는 것으로 간섭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자신의 수고로 먹고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밤 영혼을 부르시면 수고하며 쌓은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고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발상으로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려움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기쁨을 위한 평생을 살아가지만 신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어 삽니다. 신자 역시도 자기 기쁨만 행하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생명과 무관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인생이 되겠다는 식의 무모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표면적으로는 믿음에 의한 믿음의 결단처럼 보이겠지만 그 또한 자기 기쁨을 위한 집착의 연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자

하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회락이 됨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사는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한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자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늘 부정당할 대상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나의 수고와 힘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마땅한 죄의 존재일 뿐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둔다면 먹고 마실 자격조차 없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먹고 마시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에서 참된 기쁨을 볼 것입니다.

## 성막의 뜰 (112강)

출 27:9-19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은 자신에게 위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평온한 일상에서는 신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 신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식만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실상이라 해도 잘못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현실은 당연히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황포로

고통을 겪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주변 강대국의 위협으로 위태로움을 느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평안할 때는 잊고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시 106:21-22)는 내용이 그들의 실상에 대한 증거이며 우리의 실상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잊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 근



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잊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있는 것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은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무관합니다. 즉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은 자로 교회를 찾는 종교인이 바로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린양의 희생이 있었기에 죽음의 통과하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으로 세우신 것이 유월절 의식이며 이것을 이스라엘 안에 새겨두기 위해 세우게 하신 것이 성막입니다. 따라서 성막에 담긴 취지는 '행하라'가 아니라 '기억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지는 제물을 보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자기들의 행위만 기억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은혜는 잊고,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만 기억하는 기독교인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제물이 불태워지는 제단은 성막의 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뜰에 대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백 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

**쪽을 당하게 함지니"** (92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막의 뜰은 남쪽과 북쪽에 각각 백 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치고, 서쪽에는 50규빗의 포장, 동쪽에는 뜰 문이 되는 스무 규빗의 휘장과 문 양쪽에 열다섯 규빗 씩의 포장을 치는 것으로 만들어 집니다. 포장이 담 역할을 하고 포장 안이 뜰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 뜰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죽이고 제단에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끌려온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울음소리와 그 몸이 불에 태워지는 냄새로 가득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의 뜰은 죽음을 보여주는 의식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성막 뜰에서 이스라엘이 기억할 것은 당연히 죄로 인한 자신들의 죽음입니다. 희생 제물을 죽이면서 자신의 죽음을 실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의 의미이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 되면서 제사를 행하는 것에 의미를 두게 되고, 자신들의 제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미신의 수준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홍해에서의 구원은 구원될 가치가 없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공훈과 자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공훈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언하는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시편 106: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구원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 이 모든 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오로지 자기 구원과 복에 중심을 두고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미신으로 전락된 기독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은 자로 살면서도 스스로를 믿음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는 종교인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뜰에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제물의 죽음이 있습니다. 즉 죄가 넘치는 현상이 성막의 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바울의 말처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현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죽음의 존재입니다. 그들 속에 자기의 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의 존재가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에 거하게 됨을 보게 되고 실감하게 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믿으신다면 예수를 단지 미신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단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 신상에게 절하라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역하여 풀무불에 던져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던졌는데 그가 보게 된 것은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말

을 합니다(단 3:24-25).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풀무불은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세상 현실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는 죄의 존재로 심판의 세상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죽음의 존재가 죽지 않은 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신자의 복입니다.

성막의 뜰은 죽음의 세상에서 죽지 않는 신자의 복이 증거 되는 현장입니다. 죄 없는 제물의 죽음으로 인해 죽어야 할 자가 죽음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제물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보는 신자는 자신의 존재 근거가 자신이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에 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형편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 신자는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로 삽니다. 결박당해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이 결박되지 아니한 모습으로 있는 것 또한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 받은 신자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참된 권세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신자에게 축복은 소유가 아니라 죽음에 결박당한 인간이 예수님의 권세로 해방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은 죄인이며 죽음의 존재라는 사실이 자신의 실상으로 명확히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것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이 제물의 죽음이 의가 되고, 그 의로움 안에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가 의가 되어 그 의로움 안에 존재하는 신자 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자는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복의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1. 주일 아침에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1층 커피머신에 원두를 채우는 것입니다. 원두는 제가 생두를 구입하여 직접 볶아서 준비합니다. 업자에게서 원두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약 70~80%정도 저렴합니다. 잠깐 원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커피 열매는 익으면 앵두 비슷한 모양의 빨간색이 됩니다. 이것이 가공 과정을 거치면 연한 녹색의 생두가 되고 볶으면 먹을 수 있는 갈색의 원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생두를 볶으면서 커피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생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는 생산 국가와 산지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재배한 지역과 고도, 가공 방법 등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볶는 방법과 기술 또한 맛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는 주로 케냐를 마셨는데 올해 초부터는 카메룬 블루마운틴이라는 원두를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세계 삼대커피로 유명한 블루마운틴 중을 아프리카 카메룬이라는 곳에서 재배한 것인데 맛이 아주 좋습니다. 자세한 것까지 언급할 수는 없지만 커피를 내릴 때 물의 속도와 온도를 잘 맞추면 최상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똑같은 원두라 해도 사용하는 기구와, 물을 내리는 온도, 속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것이 신기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커피가 제게 주는 즐거움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주까지 3주 동안 1층의 커피 머신에 채웠던 것은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아라차 내추럴'이라는 원두입니다.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지역의 아라차 마을에서 생산된 것인데 에디오피아

피아 커피에서 최고급 종에 속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케냐 니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셨던 커피 맛을 기억하신다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케냐는 신맛이 있는데 조금 강하게 볶아서 신맛을 줄였습니다. 제가 신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한 주일에 커피가 약 250~300그램 정도 소비되네요. 20~25잔 정도의 분량인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원두를 즐기시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혹시 원두가 필요하신 분은 제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드리면 부담 되실 거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원두 비용 확보를 위해서 실비 정도는 받겠습니다. 현재 제게 있는 것은 케냐, 에디오피아, 코스타리카, 카메룬 블루마운틴입니다.

2. 지난주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의 화재 사건입니다. 노트르담 성당은 말만 들었지 사진으로도 본적이 없었는데 화재 사건 때문에 보게 되네요. 프랑스 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는 너무 유명한 그림이어서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프랑스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노트르담도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적 중의 하나인데 화재가 났으니 프랑스 국민들의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0년 전에 국보 1호인 남대문(송례문)이 방화로 인해 소실된 적이 있었는데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복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예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노트르담도 화재가 난지 하루 만에 복원을 위한 기부금으로 1조원이 모금되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예전의 노트르담은 아닙니다. 결국 있다가도 없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에 여기에 대해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 교회소식

1. 오늘은 부활주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는 지켜야 할 특별한 날은 없습니다. 차  
라리 부활 생명보다 세상의 것을 그리워  
하면서 부활을 말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2.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는 2시에 시작합  
니다.
3.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집사 선출을 위  
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대상자 : 김현동, 장동현, 박철현, 장영대  
송재관, 서창남, 명기릉, 이민혁,  
장정환
4. 29일 오후 3시에 행복샘교회당에서 동부  
노회 정기회가 소집됩니다.

## 사람은

신윤식

세상에 와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잠을 수 없고  
잠히지도 않는

뜨거운 갈은  
행복을 좇아

가쁜 숨  
풀아쉬며

부거운 걸음으로  
허덕이는

평생의  
헛걸음

### 에베서간인배

주 일 오전	11:00	주일학교	13:20
주 일 오후	14:30	수 요 일	19:00

### 주일 오전예배

AM 11:00

인도/설교  
신윤식 목사

목상기도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67장
교독문	68(사40장)
기도	김종건 장로
찬송	165장
성경봉독	고전 15:9-11
설교	하나님의 은혜(101강)
기도	설교자
찬송	305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 찬송	5장
* 축도	설교자
다음주 기도 : 이영민 장로	

### 주일 오후예배

PM 14:00

인도/설교  
신윤식 목사

목상기도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304장
기도	이경숙 집사
찬송	321장
성경봉독	전 3:1-8
설교	기함과 때(10강)
기도	설교자
찬송	549장
주기도문	다함께
다음주 기도 : 김옥분 집사	

### 수요일예배

PM 19:30

인도/설교  
신윤식 목사

목상기도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286장
기도	다함께
찬송	338장
성경봉독	출 27:20-21
설교	등불(113강)
기도	설교자
주기도문	다함께